

국내 실정에 맞는 수의서비스와 마케팅 접목,
농가의 생산성 향상에 최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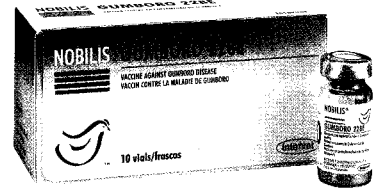
인터벳트/쉐링푸라우 신임 서승원 대표이사

글 | 김효진 기자(hj@chicken.or.kr)

Intervet
Schering-Plough Animal

2007년 3월, 미국 제약사인 쉐링푸라우가 인터베트의 모기업인 네덜란드 화학그룹 악조노벨을 인수하면서 국내 동물약품 업계에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특히 쉐링푸라우의 인터베트 인수는 동물약품 시장 리딩기업간 결합이라는 점에서 시장점유율 등 시장구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으며, 실제로 국내 시장의 경우 인터베트와 쉐링푸라우는 주력제품군이 대부분 겹치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었다.



2008년 3월 통합사장으로 빅터 반 솔링어 인터베트 코리아 사장이 임명된 후 1년여의 시간이 지난 4월 1일, 다국적 동물약품기업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서승원 상무가 사장직을 맡게 되었다. 이는 인터베트/쉐링푸라우에서 내부승진을 통해 한국인 지사장이 되는 첫 번째 케이스다.

서승원 사장(42)을 만나 향후 인터베트/쉐링푸라우의 사업방향과 포부를 들어보았다.

Q 먼저 한국 지사장으로 취임하신 걸 축하드립니다. 한국인 지사장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알고 있는데, 배경은 무엇인가?

A 다국적 기업의 경우 외국인 사장이 많이 있어도, 한국인은 드문 편이다. 그런 면에서 이번 한국인 지사장 선임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본사에서는 국내 축산업 시장 상황과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 개선 등을 위해서는 국제적 감각이 있으면서 국내 실정에 밝은 국내 사장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 다시 말해, 인터베트/쉐링푸라우가 동물약품 시장의 세계화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한국의 축산기업 풍토를 존중하는 글로칼리제이션(globalization)이 바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Q 부담감이 컸을 걸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회사를 이끌어갈 것인가?

A 올해 초 본사에서 대표직 승진과 관련 통보를 받았을 때 많은 부담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많은 고민을 하다가 평소에 등산을 좋아해 산을 오르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생각했다. 그러던 중 회사와 관련된 일은 직원들 그리고 고객들과 함께 풀어간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앞으로 회사에 대한 주요 일들에 대해 직원들과 농가의 의견을 경청하여 거기서 나오는 아이디어를 취합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 제품 판매가 목적이 아니라 축산농가의 질병예방과 치료 그리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파트너

로서의 인터베트/쉐링푸라우가 되기 위해 기술영업지원담당들의 농장 컨설팅 위주로 서비스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본사에서는 기술영업지원담당자들의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Q 인터베트/쉐링푸라우의 현재 위치와 올해 신제품 출시 계획은?

A 현재 인터베트/쉐링푸라우는 국내 동물약품 시장의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양계백신의 시장점유율은 20%를 상회하고 있다. 육계분야의 주력제품으로 뉴캐슬병에 쓰는 ND Clone30과 강보로 228E, D78 등이 있는데, 기존 제품들은 견고히 성장 중에 있다.

올해 신제품 2종을 출시할 계획인데 이 제품들이 출시되면 매출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새롭게 선보일 종계(육용)의 전염성빈혈 백신과 닭비기관염 백신을 각각 올 봄, 가을에 출시할 예정으로, 이 백신은 산란율 저하와 2차 감염 발생을 예방하여 농장의 생산성이 상당히 개선될 것이다.

Q 올해 인터베트/쉐링푸라우의 사업계획은?

A 지난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현재 인터베트와 쉐링푸라우의 통합도 거의 마무리된 상태로 올 상반기부터는 인터베트와 쉐링

푸라우의 각각의 장점도 살려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본격적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인터베트/쉐링푸라우는 매출의 15% 이상을 R&D 분야에 투자하는 기업이다. 그 만큼 앞으로 저병원성 AI, 뉴캐슬병 등 국내 농가들이 특히 문제로 삼고 있는 질병에 대해서도 본사에서 연구·개발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관납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준비중에 있다.

수의사로서 1년전부터 틈틈이 대학 강단에서 수의서비스 및 마케팅 분야에 관한 강의를 하고 있는 서승원 사장. 지난 2월에는 수의사로는 처음으로 일반경영학 박사학위를 따내 수의 전문경영인으로서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다.

서승원 사장의 지갑 속 꼬깃꼬깃 접혀진 종이에는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가장 좋은 선은 물과 같다'라는 뜻의 '상선약수'(上善藥水)가 씌여져 있다.

이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최선의 방법은 물처럼 살아가라는 것이다. 그릇에 따라 자신의 모습을 바꿀 수 있는 물의 유연함과 아래로만 흘러내려 결코 자신을 높이지 않고 겸허히 여길 줄 아는 물의 낮음, 그리고 아무리 크고 거대한 바위라도 뚫고 마는 물의 힘. 이 세가지 물의 특성을 기업경영에 접목시켜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인터베트/쉐링푸라우를 만들어 갈 것 다짐하는 서승원 사장의 바람이 이뤄지길 바란다. 